

연중 제 27 주일  
(군인주일)

기도서 451 면(B해)  
 제1독서: 창 세 2, 18-24  
 제2독서: 히 브 2, 9-11  
 복 음: 마 르 11, 12-16  
 후 10, 2-12

# 숨 정 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된다.

(마르 10,9).

□ 강 론



## 전선의 고향

정 양 현 신부

‘고향 땅이 여기서 얼마나 되나 푸른하늘 끝 닿은 저기가 거진가?’

목을 기다랗게 베고 구름이 걸쳐진 먼 산을 바라 봅니다. 지금쯤 내 고향 남쪽 하늘에도 빠알간 노을이 드리워 질거라 생각하며 군복을 여미어 봅니다. 어머니 생각! 친구 형준이 생각! J, 그대 생각! 그리운 모습들이 초병의 눈망울에 맺혀 집니다.

로사리오 성월을 맞이하면서 맨먼저 맞이하는 군인주일!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군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주어야 한다고 제정된 군인주일에 군중신부는 웬지 어색함을 느낍니다. 그것은 우리의 물질만능 풍조가 어느새 기도마저 물질로 변화시켜 버렸을 거라는 아집 때문입니다.

군인 사병들은 강원도 인십처럼 단순하고 소박합니다. 더구나 이렇게 때를 지 않은 산골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항상 자기를 길러주신 부모님을 내심으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장점으로 성장하게 해준 고마운 분들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는 모습으로 비쳐 집니다.

성모님을 좋아하는 초병들! 성모님이 자기를 제일 좋아 해 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성모님께 자기의 아픈 이야기를 나누는 우리 신자 사병들! 그들은 군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조금 배어있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성향을 씻으려고 가난한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방법을 배우며 예수님처럼 가난해 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 여러 종류의 새로운 만남과 관계속에서 살아갑니다. 고독함 속에서 하느님을 만나며 외로운 가운데 밤하늘의 별을 만나며, 자기보다 더 가난하고 더 못나고 더 아프고 더 못배운 동료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정병 그들은 만남의 신비속에서 만남을 먹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둘러 보아도 산! 예쁘고 고운 옷을 서서히 입기 시작하는 산-속에서 크게 소리를 쳐봅니다. 외롭지 않다는 메아리가 되돌아 옵니다. 산에서만 산다는 메아리는 우리 사병들이 그리워 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모든 분들입니다. 메아리는 젊은이들이 아무도 모르게 토해내는 아픈 마음의 기도입니다.

(군 중)



## 주교님들의 체험

—누가 이웃?

교회는 결코 현실에 안주(安住)할 수 없다/소의 지역과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떨어져 있나 알았다/가장 의미 있고 훌륭한 개인피정이었다/이 프로그램은 지속적이어야 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목(司牧)에 반영되어야 한다/이 체험은 신학생과 신부, 교회와 사회의 지도자들에게도 확산되어야 한다. —이상은 우리 주교님들이 지난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3일간 소의된 지역을 찾아 현장 생활체험을 통해서 얻어진 의견들이다(가톨릭신문 9월 15일·22일자 참조)

공단 근로자·도시 빈민촌·광산촌·농촌을 찾아가던 일곱분의 주교님들은 신분의 노출과 짧은 일정때문에 완벽한 체험을 얻지는 못했다 한다. 그러나 제3세기에 들어선 한국 천주교회 장상들의 현장 생활체험이라는데서 우리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는 분명히 이시대의 징표를 읽어서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교회 쇄신운동의 첫걸음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체험은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리스도 삶」의 작은 모델이라고 여겨져, 우리는 큰 박수를 보내며 한국 천주교회의 신자라는 점에 긍지마저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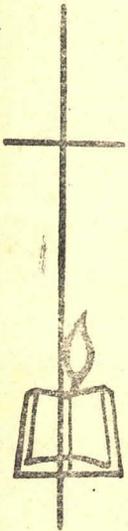
박정일 주교님은 「작은 공간을 아래 위로 쪼개어, 설수 초차 없는 곳에서 일하다가 적당히 치우고 자고, 또 일하는 청계천의 한 봉제공장을 보고 “경악했다”고 가톨릭신문에 그 심정을 밝히고 있다. 누가 이러한 처지에서 고통 받는 근로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단 말인가! 영세 농어민, 도시 빈민, 탄가루를 숨쉬는 광부들과도 그렇다. 영화나 소설이 아닌 엄연한 현실을 우리는 막연한 상상으로만 짐작해온게 아닌가? 그리고 그들의 한맺힌 절규에 눈살을 찌푸리지는 않았는가? 주여,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루가 10장 25절 이하)

## 숨 정 이 산책



약동하는 전주교구

성서교실 ⑦



#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마르 9:40)

마르코 복음은 「어린이를 환영하는 자」(9:37)와 「죄의 유혹」(9:42) 사이에 제자들과 별행동(別行動)을 하는 사람에 대한 기사(9:38-40)가 나온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사람에 대해서 요한이 못마땅하게 생각한 나머지 그것을 저지했을 때, 예수가 한 말씀이 곧 본문(本文) 내용이다.

요한이 저지한 그 내심에는 추한 당파심, 바리새이 파의 근성이 있었던 것이다. 예수는 요한의 편협심, 당파심을 꾸짖었던 것이다. 본문(本文)과 같은 내용이 고린토 전서 12장 3절에도 나온다. 「하느님의 성령을 받아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받아라” 하고 욕할 수 없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고백할 수 없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동시에 욕을 한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샘(泉)이 같은 구멍에서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올 수는 없는 것이다. 이 기사와 같은 내용이 구약에도 나온다. 그것이 저 유명한 「엘닷, 메닷」 이야기(민수 11:24-29)이다. 여호수아가 자기 단체에 속하지 않은 엘닷, 메닷 두 사람이 예언을 하는 것을 저지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단단히 나무랬다. 사도 바오로도 같은 말을 하고 있다. 「가식으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니 나에게서는 기쁜 일입니다」(필립 1:18).

당파심, 시기, 질투, 편협, 자기만이 하느님의 은총을 특별히 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만, 이것이 종교가(宗敎家) 특유의 「병」(病)인 것이다. 그런데 곤란한 것은 이 병상은 신앙의 열심에 비례한다. 예수의 사명은 종교를 이 암종(癌腫)에서 구출하는 것이었다. 편협은 당파심이고 이기주의이다.

## □ 로사리오 성월

### \*\*\*\*\* 로사리오 기도 \*\*\*\*\*

#### □ 로사리오 기도

로사리오란 말은 장미 꽃다발(Rosarium :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다. 로사리오 기도는 서방 가톨릭교회 안의 전례 밖의 기도중 가장 널리 보급되었고, 많이 울리는 기도이다.

이 기도는 성모 마리아를 통하여 하느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살아가게 하며, 그리스도께서 가르치고 이루신 구원의 신비를 묵상하게 하여 우리 자신을 성화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게 한다.

#### □ 로사리오의 역사

옛날 니니베 시대부터 기원을 이룬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당시의 신자들은 같은 내용의 기도를 반복하며, 기도의 횟수를 세기 위해 구슬, 염주알, 마른씨, 조약돌 등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불교나 그 외의 다른 종교에서도 행하여졌었고, 어떤 종교에서는 구멍이 뚫린 나무판을 사용하여 기도의 횟수를 세었다는 기록도 볼 수 있다.

로사리오의 역사는 도미니코회 수도원 규칙으로 시편 150편을 매일 외우는 데서 비롯되었다. 수도자들은 시편 150편을 항상 기도하며 묵상하였는데 평신도들도 이 기도를 따르고 싶어 하였지만 너무 길고 어려워 '주의 기도'만 150번 열송하였다. 그래서 묵주(구슬) 기도를 주의 기도라 불렀으며, 지금도 '주의 기도'라 부르는 나라가 있다고 한다.

12세기 중엽 성모송이 일반화되면서 로사리오 기도로 활용되었고, 15세기에 이르러 이 기도는 예수님의 구세사를 성모님과 관련지어 묵상하는 기도로 바뀌었다.

16, 17세기에 성모송을 많이 바치게 될 즈음 150장의 묵상이 15장으로 줄어들었고, 15번의 짧은 묵상으로 오늘날과 같은 로사리오 기도의 현의(玄義: 간직된 깊은 뜻)가 이루어 졌다.

#### □ 성모 발현과 묵주 기도(로사리오)

묵주 기도는 성모님께서 1850년 이후 직접 여러곳에서 발현하시어 간절히 원하셨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830년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 발현하셨고, 1846년 라살레트에 발현하신 성모님께서는 머리와 가슴, 그리고 발에다 오색찬란한 화관을 두르고 계셨는데, 이 꽃들은 우리가 매일 성모 마리아께 바치는 장미였다.

2. 1858년 루르드에 발현하실 때는 묵주를 가지고 오셔서 묵주기도를 바치라고 벨라멧다에게 가르쳐 주셨다.

3. 1871년 폰트마인에 발현하시어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 간청해 주시는 당신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 주셨다.

4. 1917년 파티마에 6번이나 발현하셨는데, 매일 묵주 기도 15단을 바칠 것을 간곡히 부탁하시고 6번째에는 당신을 “매피의 모후”라고 선언하셨다.

전북의료보험조합 지정

### 소흥영의과의원

의학박사 소흥영(요한)  
전주시 서노송동 602-21

병원 ③ 3668

자택 ③ 8120

### 미영칼라현상소

칼라사진 45분 완성

컴퓨터 시스템의  
현상 인화기 신설

☎ ③ 3651-9286

전주시 중앙동 3가 30-1

점병전(토마스모어)  
이영의(투리포니아)

### 열대어 수족관

비단잉어·거북·대형수족관

군산극장 앞

3-3674

임의웅(발레티노)

- 혼수(회갑)웃감 | 도매상
- 특수 파티복 |
- 고급 침구류 ③
- 각종 속 일체 |
- 커벤지 |

### 서울주단

☎ ③0453 ③5095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안토니오)  
박(베로니카)

# 교 구 소 식

- ☆ **축! 견진:** 시기동천주교회, 10월 13일, 공식미사 중, 주례-박정일 주교님
- 1. 50주년 상임위원회: 8일 오전 10시, 장소-교구청
- 2. 성 프란치스코 재속 형제회: 전북지구 협의회 제7차 총회 및 제10차 수련 일시-8일 오후 2시~9일 오후 5시(1박2일), 장소-전주노송천주교회  
주최-전북지구 협의회, 회비-3,500원(숙식제공), 기타-1,000원  
준비물-수도복·기도서·성경·성가집·묵주
- 3. 전체 전모임: 다음주(13일) 오후 2시30분, 가톨릭센터 교육관
- 4. 교리교사 교구·지구 임원 및 각 분당 회장단 모임: 14일 오후 6시30분  
장소-가톨릭센터
- 5. 베델성서 제2기 졸업생 동창회 성서모임  
때-20일 오전 10시, 장소-가톨릭센터, 주례-'묵시록'  
준비물-미사도구, 지도-김준호 신부
- ※ **축! 영명:** 성 에드워드(13일): 김의철 신부님 축하합니다

## 「주님의 날」 10월호가 나왔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감사드리며 10월의 기도, 교리, 교구성인, 구원신비를 묵상하는 로사리오 기도, 그림과 함께 명상하는 약수터, 논 뒷그루 사료작물 재배를 소개한 농사정보,

남원 분당의 인월공소 소개, 이 밖에도 범석규 신부님의 말씀, 여러 신부님들의 강론을 겸한 공소예절, 신자들의 글, 10월 축일표, 교구 행사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농촌 신자들의 많은 구독 신청을 바라며, 편집실에서는 생활속에서 감추어진 보화를 함께 나누는 독자들과의 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 구독 신청은 교구청 홍보국으로 가격 300원

### ♣ 잠깐!

오늘은 군인주일-

우리 국토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인들과 이들의 사목을 담당하는 군종신부님들을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생각하자는데 그 의의가 있겠다.

남을 위해서 있는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있는 그 군인들은 누구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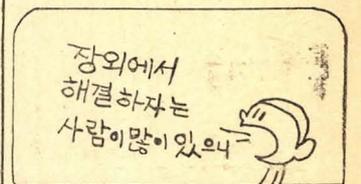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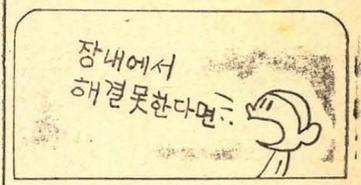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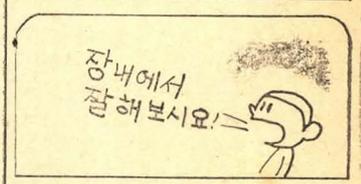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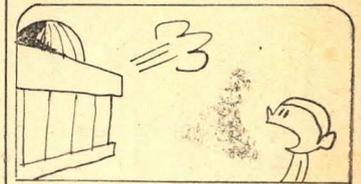
바로 내 아들, 내 형제, 내 친구,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들 모두가 귀하기 그지없는 젊은이들이다. 앞으로 우리 본당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교회의 사도들이기에 우리들이 무관심한 그만큼 국가의 손해요 교회의 손실이다.

일시적인 위문이나 위문품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가장 값진것일 것이다.

한 권의 교회서적이랄도, 한 장의 교회신문이랄도 보내자. 그리고 교구 군종후원회에 가입하여 복음의 씨를 뿌리는 군종신부님들이 천백 만배 결실을 맺도록 물질적, 정신적 지원을 아끼지 말자.

## 요심이 (635) 김병오



## 해성 동창회

제10차 해성 중·고 동창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오니 빠짐없이 참석 요망합니다

일 시: 1985. 10. 9.

오전 10시

장 소: 해성중·고 대강당

안 건: 임원선출 및 체육대회

회 비: 3,000원(중식제공)

전주 해성중·고 동창회

회장 김 인 군

최 윤경(유리안나)  
미용실 미용학원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  
학생 수시 모집  
해외 연수생 모집  
이리시 중앙동 3가 7-1  
☎ ㉓ 2496 ㉔ 8653

안경의 생명은  
좋은 렌즈, 정확한 안경  
친절과 성실로 교우 여러  
분에게 열가봉사  
제 일 안경원  
전주 전통성당 사거리  
(신호등 앞)  
2-0102·72-3225  
김스테파노 김마리안나

## 마기환 안과의원

부설: 새한콘택트렌즈  
원 장 마 기 환  
안과전문의  
한 남. 희(비리시타)  
TEL. 75-2203  
(시집가는날. 태극당건너편 불새대방 2층)

동 태극당

←전동성당 서 오거리→

풍년제과로

마기환안과

제 1 지구 각 본당소식②

**(노송동)** 사제관 6-0969 주임신부 김 용 태  
수·사 2-7032 보좌신부 김 의 철  
아파트 75-6389 사도회장 이 흥 재

1. 축! 본당의 날: ~~수~~ 오전 9시30분부터, 중앙여고 ~~수~~의 본당미사-오전 6시·오후 7시, 아파트-오전 7시, 모두 중앙여고 교정에서 만남시다
2. 견진성사 신청마감: 다음주(13일)까지 신청하세요  
견진준비 교리-14일~16일, 오전반 10시~11시, 오후반 8시~9시, 견진일정-27일 본당에서
3. 예수 성심회: 8일 어머니미사 후
4. 군인주일: 오늘은 군인주일입니다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장병들을 위해 특별헌금 있음
5. 본당 울드레아 연기: 본당의날 관례로 다음주(13일) 저녁 8시로 연기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람
6. 전자울개 기금 현황: 2구좌-노계순·배기창·고양화 1구좌-고여옥·최무시아, 4천원-김옥주, 3천원-강혜레나·김수산나, 1천원-양순이·김세시리아  
계-52,000원  
누계-2,972,000원 중 헌금 1,552,000원
7. 공소 순회미사: 12일 저녁 8시, 신교리공소
8. 금주의 전례담당: 제3조, 차주는 제4조가담당입니다

**(서학동)** 사제관 2-8307 주임신부 김 반 석  
사무실 " 사도회장 김 낙 균  
수녀원 2-2276

1. 사도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반장님 월례회: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3. 꾸리아 모임: 다음주일 오후 2시
4. 성심회: 다음주일 오후 2시
5. 사제양성 후원금 신입하신분께서는 납부하여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6. 주일 미사시간 변경: 새벽-6시, 아침-9시  
낮-10시30분, 저녁-7시30분

7. 다음주 전례

미 사	해 설	1독서	2독서	기 도
첫 미사	함문권	박장준	이성희	문 치 구
공식미사	신영창 고정수	강기호	박형식	봉사 분과
저녁미사	강경화	조정웅	손옥연	김 청 운

**(전동)** 사제관 6-6208 주임신부 김 치 삼  
사무실 2-3222 보좌신부 김 기 곤  
수녀원 2-8347 사도회장 김 병 오

※ 축! 영명: 보좌신부님(김기곤, 프란치스코)  
축하식-오늘 공식미사 후, 축하연회 있음  
신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1. 사도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2. 자모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3. 주일학교 자모회: 8일 오전 10시
4.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성지순례를 떠났습니다  
어린이들 위해 많은 기도 바랍니다
4. 부활반 예비신자 모집  
토요일 학생교리-5일부터(오후 4시30분)  
일요일 일반교리-6일부터(오전 11시)  
수요일 지성인교리-9일부터(오후 8시)
5. 수세식 확장실 공사에 적극 참여합니다
6. 다음주 봉헌담당: 정진훈 부부
7.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해설-기정희, 독서-①최병래 ②이주영  
공식미사: 해설-이준영, 독서-①유철중 ②안득수
8. 전동 레지오 단원 성지순례: 12일 연풍성지

**(호자동)** 사제관 75-3841 주임신부 박 중 신  
사무실 2-0915 사도회장 이 교 성  
수녀원 2-4804

1. 오늘은 군인주일: 기도와 헌금에 정성을 드립시다
2. 꾸리아 회의: 오늘 오후 3시20분 아치에스 행사 끝나고 레지오 교육 있음
3. 주부 섬서대학: 예레미야②
4. 글라라 회의: 차주 공식미사 후

**(복자)** 사제관 75-0592 주임신부 권 영 균  
사무실 2-5238 사도회장 김 성 원  
수녀원 "

1. 꾸리아 회합: 다음주일 오후 2시
2. 성우회: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3. 삼회: 12일 오후 2시
4. 어머니 성가대 단합대회: 14일, 공지산
5. 첫영성체 교리: 4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국교생 3학년 이상
6. 주일학교 자모회: 13일 공식미사 후
7. 금주 성당청소: 월-평화의 모후pr  
토-구세주의 모친pr  
차주 성당청소: 월-사랑하오신 어머니pr  
토-순결하신 어머니pr
8. 금주전례: 해설-정운주, 독서-①천 건 ②조성호  
차주전례: 해설-김제식, 독서-①이갑진 ②정동민

**(삼관)** 사제관 79 주임신부 김 영 신  
사무실 사도회장 이 정 우

1. 오늘은 군인주일: 특별헌금 2차 있음
2. 지역 대의원회: 공식미사 후
3. 가정 기도의 날: 매주 수요일 저녁  
실천하고 계시는지요?
4. 금주전례: 해설-문병주, 독서-강창오·안성귀